# 간결함 뒤의 치밀함, 그리고 장르의 틀을 깨려는 욕망, '이야기 사냥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시간의 입》

김현균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Eduardo Galeano가 새로운 책《시간의 입*Bocas del tiempo*》을 펴냈다. 페루의 까하마르까Cajamarca 지역에서 유래한 이름 없는 삽화들이 실려 있는 이 책은 갈레아노가 직접 디자인했으며,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에 스페인(Siglo XXI de Espana, Madrid)과 아르헨티나(Catalogos, Buenos Aires)를 비롯한 스페인어권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다. AP 통신에 따르면,《시간의 입》은 6월 11일 현재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주간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각각 8위와 7위에 오르며 폭넓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이미 영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이 진행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갈레아노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소개가 이루어진 작가에 속한다. 1988년에《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맥》이《수탈된 대지》(범우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최근에는《축구, 그 빛과 그림자》(예림기획, 2000)와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르네상스, 2004)가 소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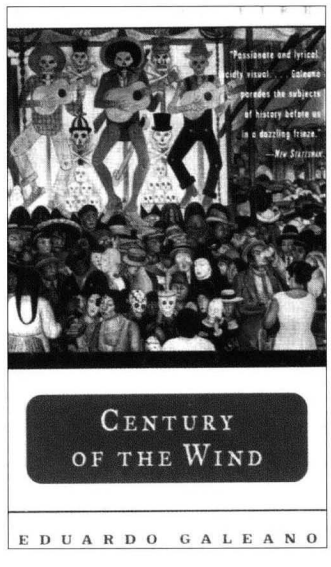
갈레아노는 1940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으며, 사회주의 성향의 주간지 〈엘 솔〉에 히우스Gius라는 가명으로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일찍이 14살의 나이에 저널리즘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주간지 〈마르차〉의 편집장(1961~1964)과 좌파 일간지 〈에뽀까〉의 주간(1964~1966)을 역임하면서 저널리스트로 두각을 나타냈다. 또 군사독재기(1973~1985)에는 아르헨티나에 망명하여 〈끄리시스〉지를 창간하였으며, 1976년 호르헤 비델라Jorge Videla의 군사쿠데타로 아르헨티나에서 '더러운 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 1985년 우루과이에서 군사독재가 막을 내린 뒤에는 몬테비데오에 거주하며 저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갈레아노는 저널리스트로서의 활동을 토대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많은 정치적 연대기를 펴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 《도전의 연대기》(1964),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맥》(1971), 《라틴아메리카 연대기》(1972) 등이 있다. 특히 약 500년에 걸친 라틴아메리카의 수탈과 불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맥》은 그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에세이로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읽혔다. 1980년대에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적 역사를 서사적으로 서술한 대작인 '불의 기억' 3부작 -《기원》(1982), 《얼굴과 가면》(1984), 《바람의 세기》(1986)- 을 통해 독서대중에게 필요한 정치서나 역사서가 어떻게 씌어져야 하는지 그 전범을 보여주었다. 갈레아노는 또한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이 속속들이 녹아 있는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왔다. 단편집 《세상의 유랑자》(1973)는 사회적 테마와 신화, 전설을 결합하는 독창적 방식을 보여주었으며, 소설 《우리들의 노래》(1975) 역시 허구적 요소와 증언적 요소를 아우르는 종래의 흐름을 견지한다. 또 1978년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독재를 다룬 소설 《사랑과 전쟁의 낮과 밤》을 발간하기도 했다.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그는 까사 데 라스 아메리까스상(1975, 1978), 미도서상(1989), 알로아상(1993), 그리고 라난 Lannan 재단의 문화자유상(1999) 등 국내외의 여러 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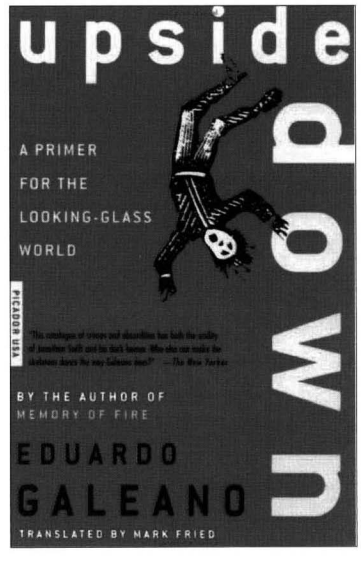
갈레아노의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듯, 《시간의 입》 역시 쪽당 한 편씩 배치된 333개의 짧은 이야기, 즉 333개의 "시간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에서 작가는 우주의 내역사(intrahistoria)와 일상의 삶에 존재하는 위대함에 주목한다. 그는 아름다움은 바로 현대사회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에 있으며, 《시간의 입》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야기들은 살아 있는 생활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영감을 위해 '뮤즈'나 '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짧은 이야기의 간결한 언어는 "작은 것의 위대함과 거대한 것의 하찮음"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 뒤에는 매우 치밀한 미학적 태도와 전통적인 장르의 틀을 깨뜨리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 오랫동안 에세이와 시, 소설, 그리고 단편을 자유롭게 유목했던 그에게 장르는 언제나 끊임없이 열려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특히 내레이션과 에세이, 시와 연대기의 경계에서 "밀수密輸의 예술"을 행하는 짤막한 이야기들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성을 정당화시켜 주기 때문에 갈레아노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다. 그가 유려한 시적 산문의 세계를 펼쳤던 멕시코의 작가 후안 룰포Juan Rulfo를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입》에서 "불필요한 언어의 옷을 벗겨내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책은 7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선정과 종합의 과정에서 내용은 좋지만 책 전체의 구도 및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배제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견 일필휘지로 술술 써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에는 즉흥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레벨리온〉지에 실린 서평은 《시간의 입》을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상의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실제 있었던 일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테마들에 관한 작가의 개인적인 성찰이다. "이야기 사냥꾼이요, 목소리들의 청취자"인 갈레아노는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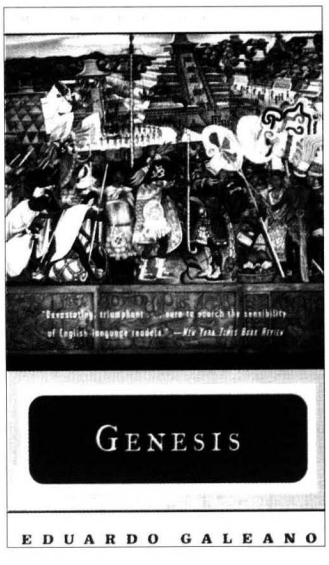



1. 《Century of the wind》
2. 《Upside Down: A Primer for the Looking -Glass World》
3. 《Genesis》
4. 《Day and Nights of Love and war》
5. 《The Book of Emb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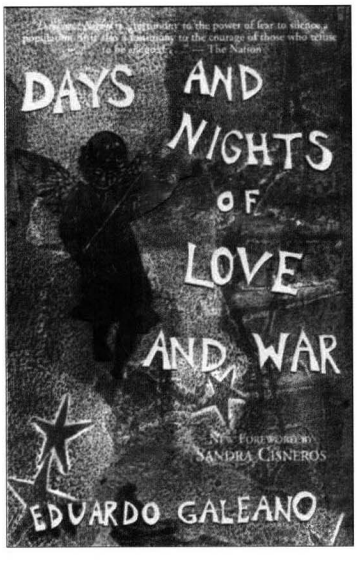
이 책에서 언론조작, 엑서더스, 권력, 전쟁이나 군사적 억압의 공포 등 현대사회의 병폐를 고발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이라크 전쟁처럼 최근의 사건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시간의 입》에는 이와 함께 유년시절, 우정, 존엄성, 사랑, 고통 같은 존재론적 테마를 위한 공간도 존재하며, 새나 나무, 물, 아메리카의 신화, 마라도나와 리베르땃 라마르께 Libertad Lamarque 같은 대중적 인물들에 바쳐진 이야기들도 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테마를 담고 있는《시간의 입》은 작가 자신의 말대로, "다양한 해안과 항구와 강어귀를 흐르는 강"이며, "형형색색의 실로 엮어 짠 천"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구조는 서로 다르지만《포옹의 책》(1989)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의 입》은 "우리는 시간으로 빚어졌다"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시작된다. 작가는 이어 뉴욕의 시인 뮤리엘 루키저Muriel Rukeyser의 구절을 인용한다. "세상은 원자가 아닌, 이야기들로 빚어졌다." 따라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이야기들이고, 세상은 시간에서 생겨난다. 또 시간의 실로 엮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말하는 시간, 즉 '시간의 입'이 된다. 이러한 작가의 시간개념은 시간이 공간의 근원을 이루는 마야의 시간개념과 맞닿아 있다. 한편 시간과 유희하는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서 "타인을 위협으로, 경쟁자로, 적으로 간주하게 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일관된 고발"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작가는 독자가 각자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명백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시간의 입》을 서술시로 읽든, 연대기로 읽든, 아니면 작은 이야기(microrrelatos)로 읽든, 우리는 그 뒤에서 어제와 오늘의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 작가의 결연한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글을 써온 그는 다시 한 번 말을 독점한 힘있는 자들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해 온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작은 이야기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물쇠 구멍으로 우주를 드러내는" 작은 이야기들을 읽으며 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진실을 엿보게 된다. "정의의 의지와 미의 의지는 샴쌍둥이처럼 한몸"이라고 여기는 그가 라틴아메리카의 '아름다운 광기'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그의 믿음을 또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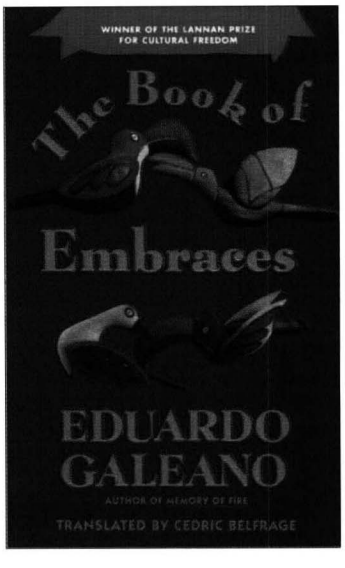
3




4




5




**이 글을 쓴 김현균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중남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